



허정무 감독 “소집 명단 발표 연기”

“선수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허정무(53·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예비 태극전사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 움직임에 대표팀 소집훈련 명단 발표를 미루고 말았다.

내년 2월11일 예정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4차전 이란 원정을 앞둔 허정무 감독은 애초 23일에 대표팀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허 감독은 명단 발표 일정을 26일로 바꿨다. 며칠 속에 구상했던 명단 가운데 해외파로 변신을 꿈꾸는 선수들이 생겨서다.

허 감독은 지난 22일 차두리(29·코틀랜드)의 결혼식에 참석해 취재진과 만나 “23일에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미뤘다”며 “명단에 포함할 일부 선수들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내년 1월10일부터 제주도에서 소집훈련을 계획하고 23일 오전에 K-리그 선수만으로 구성된 23명의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외파 선수들은 A매치 기간이 아니어서 대표팀 훈련에 소집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최근 열기훈(울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로미치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고 돌아왔고, 조원희(수원)와 이근호(울산)가 유럽 진출을 노리면서 허 감독의 대표팀 일정 ‘로드맵’에 변경을 초래했다.

허 감독은 “이번 훈련은 국내에 선수들을 위주로 훈련하면서 이란전에 대비할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해외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명단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근 이란의 전력을 분석하고 극복한 정해성 축구대표팀 수석코치는 ‘중동의 강호’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 16일부터 오만에서 열렸던 4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해 에콰도르와 준결승에서 0-1로 패배를 당한 뒤, 3-4위전에서 중국을 2-0으로 꺾고 3

전남 과태휘 독일서 재활 치료

무릎 수술 무사히 마쳐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골 끌는 수비수’ 과태휘(27·전남)가 독일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박항서 전남 드래곤즈 감독은 23일 “과태휘가 이번 달에 무릎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면서 “당분간 독일에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오른 무릎 심판인대를 다쳤던 과태휘는 지난 9월 독일 레버쿠젠에서 무릎과 발 수술 전문의인 토마스 파이퍼(54) 박사 집도로 수술했다.

과태휘는 수술 부위에 보호대를 차고 하루 두 차례 정도 스포츠 재활전문센터에 들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래 강수연(29) 씨는 임신한 몸으로 독일에 직접 가 과태휘를 보조하고 있다.

전남 구단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과태휘가 재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독일에서 당분간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태휘의 귀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과태휘가 수술대까지 오르면서 최소 5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과태휘 측은 전망했다. 에이전트 김학렬씨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축구 선수가 무릎 수술을 할 경우 보통 5~6개월 정도 재활을 한다”면서 “과태휘가 내년 5월 또는 6월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태휘는 지난달 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K-리그 경기에서 전반 30분에 공중볼을 다투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쓰러졌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오른 무릎 심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비 벽을 피해서

2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첼시와의 경기에서 첼시 수비수들이 스티븐 피에나로의 프리킥을 막기 위해 수비벽을 만들고 있다.

위를 차지했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43위로 한국(42위)보다 한 계단 낮지만 한국과 역대전적 8승5무8패의 팽팽한 균형을 이룬 강적이다.

정해성 코치는 “이란은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여 4명의 미드필더가 다이아몬드형을 이뤄 수비형과 공격형 미드필더가 뚜렷하게 배치돼 있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6명 정도가 공격에 적극 가담했는데 제공권 다툼에서 위협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 뛰는 주전급 5~6명이 빠져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다. 정확하게 전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비디오를 통해 봤던 것처럼 기술과 파워를 갖춘 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B조에서 2승1무(승점 7)로 이란(1승2무·승점 5)에 유품고 있어 이란과 맞대결이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최윤아

4R ‘최우수 선수’

여자프로농구

KB 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안산 신한은행 최윤아(23)가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기자단 투표 결과 최윤아가 총 51표 가운데 27표를 얻어 8표를 획득한 팀 선배 정선민(34)을 제치고 MVP가 됐다고 23일 밝혔다.

최윤아는 올 시즌 18경기에 나와 평균 9.3점, 4.6리스트, 3.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신한은행의 고공비행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 가드다. 특히 자유루 31개를 던져 모두 성공한 정확도가 돋보인다.

경기감독관, 심판, 통계 및 기록원 투표로 정해지는 기량발전선수(MIP)로는 구리 금호생명 한재진(24)이 28표 만장일치로 뽑혔다.

/연합뉴스



24일(수)

▲08/09 V리그<KT&G : 현대건설>(16 : 40·KBS N SPORTS), <삼성화재 : 한국전력>(18 : 40·KBS N SPORTS)

▲08/09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금호생명>(16 : 50·SBS 스포츠)

▲08/09 동부프로미 프로농구<KTF : 삼성>(18 : 45·XPORTS·SBS 스포츠), <코비스 : 전자랜드>(19 : 00·MBC ESPN)

10명 뛴 첼시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첼시가 에버턴 원정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선두로 나설 기회를 놓쳤다.

첼시는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경기를 지배해 나간 첼시는 전반 35분 주장 존 테리가 에버턴의 리온 오스만에게 거친 태클을 해 퇴장당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수적 열세 속에 에버턴의 날카로운 공격을 견뎌내며 고전했다.

올 시즌 리그 원정경기에서 8전 전승을 거뒀던 첼시는 이날 무승부로 11승5무2패(승점 38)가 돼 전날 아스널 원정에서 1-1로 비긴 리버풀(11승6무1패·승점 39)에 이어 2위를 지켰다.

2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첼시와의 경기에서 첼시 수비수들이 스티븐 피에나로의 프리킥을 막기 위해 수비벽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성봉규 (현원동목회원 16-07-27)
· 전 화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무처장 · 전 대한민국 행정기사협회 광주지부장
· 전 광주광역시 행정기사협회 회장 · 전 광주광역시 행정기사협회 이사
· 전 광주광역시 행정기사협회 공동대표 · 전 광주광역시 행정기사협회 공동대표
· 전 광주광역시 행정기사협회 공동대표

지역 소재지	인원	직무(면접)	김경기	최재기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58-771	898명	4·9층짜리	
서구 군동 행정기사협회	345-775	79명	3층짜리	
광양 행정기사협회	43-52	78명	2층짜리	
남구 자동차 대리점협회	501-705	595명	3층짜리	
부평 행정기사협회	155-205	29명	1층짜리	
용인 행정기사협회	40-713	82명	2층짜리	
광주 도상동 행정기사협회	255-408	22명	1층짜리	
신영동 행정기사협회	105-152	38명	2층짜리	

지역 소재지	인원	직무(면접)	김경기	최재기
부평 구동 행정기사협회	167-745	244명	6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46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47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48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49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0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1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2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3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4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5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6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7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8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59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0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1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2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3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4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5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6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7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8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69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0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1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2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3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4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5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6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7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8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79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80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81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82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83	244명	4층짜리	
광주 광동 행정기사협회	167-784	244명	4층짜리</	